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바랄까



《나는 자꾸만 살고 싶다》 안효숙 지음 | 마고북 | 232쪽 | 7,500원



《나는 자꾸만 살고 싶다》의 저자 안효숙(42) 씨는 IMF관리체제에 있을 때 남편의 사업이 부도를 맞는 불행을 겪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생계는 막막했다. 남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대충 주어진 운명대로 살라고 했지만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문화센터에서 시를 공부하기도 했던 지적 주부였던 안효숙 씨는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파는 장돌뱅이로 나섰다. 장터는 그녀에게 생계 터전이면서 사는 힘을 준 곳이다. “어려워지기 전에도 장을 참 좋아했어요. 장을 돌고 나오면 힘이 났었죠. 그곳에서는 100원을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건 정말 진지한, 가치 있는 싸움이예요. 생계 때문에 장터까지 찾아지게 되자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그곳에서 치열한 삶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

그녀는 장터의 가장 낮은 곳에 앉

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들을 항상 메모해 두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그 따뜻함을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었다. 사이트에 오른 그녀의 글엔 예상 외로 많은 답글들이 올라왔다. 그녀를 동생처럼 여기고 격려해 주는 이들도 많았다. 책은 그때의 글들을 중심으로 모았다.

“많은 분들이 직접 장으로 찾아오시기도 해요. 제가 없을 때 몰래 자리에 꽃을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 글 쓰는 보람을 느꼈어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도 인정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붕어빵 장사를 할 무렵 쌀값을 아끼려고 빵을 굽다 남은 바닐라 향이 물씬 풍기는 반죽으로 수제비를 끓여 먹었던 기억,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져서 아이들과 추위를 잊기 위해 이불로 김밥놀이를 하던 일화들이 소개되어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었다.

숨기고 싶은 상처지만 그녀는 경제적인 위기 전부터 남편의 오랜 폭력에 시달렸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더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아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서 제가 그동안 제 삶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거죠.” 이렇듯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모성의 힘이었다. 자신보다 의젓한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났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상황은 늘 안 좋았어도 이상하게 희망의 끈을 놓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 글을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서도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오를 일만 남았구나 하고, 혹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내 운명이라고 항거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앞으론 오지의 마을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안효숙 씨. 그런 그녀의 이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듯하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 생도 아름다울 수 있더라.’ 그것이 그녀가 자꾸만 살고 싶은 이유이다. **이은**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